



#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Pontifical Foundation of the Catholic Church, Aid to the Church in Need

전화: 02)796-6440 팩스: 02)796-6439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67 8층 (신수동, 대승빌딩)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후원계좌: 신한 100-031-121620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idtothechurchinneed



제 7호 · 2016.11



필리핀의 한 묘지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합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힘써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분의 요청에 따르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ACN 설립자,

베렌프리트 판 슈트라텐(Werenfried van Straaten) 신부님

##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는 전 세계 “고통받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어,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교회들이지요. 그러나 우리 도움에 모든 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전투의 교회”라고 불리는 무형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신자들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땅 위에 건설된 교회(유형 교회)가 아닌, 하늘에서 성인들이 함께 하시는 “개선(승리)의 교회”와 연옥의 가난한 영혼들이 “고통받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중 연옥 영혼들의 “고통받는 교회”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또 다른 교회입니다.

후회를 깊이 느끼며, 완전한 변화와 치유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충만하여,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회개의 과정을 받아들여 받게 됩니다. 이는 진정 하느님 자비의 선물입니다. 힘든 수술 과정을 견디며 병을 치유받는 환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스스로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선행을 실천하고 기도를 할 때 비로소 그 도움을 받아, 연옥의 불에서 조금 더 빨리,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뿐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두 번째 회칙 「희망으로 구

안으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내 삶도 다른 이들의 삶에 흘러 들어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영향을 미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는 자비의 활동입니다. 이를 종종 잊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작은 선행과 희생, 기도 등을 통해 죽은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미사 봉헌일 것입니다. 수많은 연옥 영혼들이 이미 잊혀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지요.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훗날 그들도 우리의 청원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충실하고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르스의 성 요한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선한 영



사랑이신 하느님의 자비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서겠지요. 그때에 우리는 교회에 가르침에 따른 모든 선한 행위뿐 아니라 회개하지 못한 죄, 죄의 결과, 행하지 못하거나 마지 못해 행한 선 등 모든 결함들과 병약한 면들도 함께 고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겸허히 서서 그분의 사랑을 헤아리게 된다면, 단 하나의 소망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고, 회한과

원된 우리」(Spe salvi)를 통해 우리에게 죽은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사후까지 미칠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죽음의 경계 너머까지 계속되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수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확신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위안의 이유가 됩니다. (중략)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죄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루는 것에서 다른 이들의 삶이 끊임없이 내 삶

흔들에게 얼마나 귀 기울이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간절한 청원을 통해 얼마나 큰 자비를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옥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드리면, 죄인들은 회개하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께 찬미를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르틴 바르타 신부  
국제 ACN 지도신부



### 이라크 칼데아 가톨릭 아르빌 대교구장 바샤르 마티 와르다 대주교님

지난 10월,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 KOREA)의 초청으로 이라크 아르빌 대교구장 바샤르 와르다 대주교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와르다 대주교님께서는 이라크 아르빌(Erbil)에서 국내 그리스도인

난민 지원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 난민들은 모두 2년 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داع시(IS)를 피해 고향으로부터 떠나온 이들입니다. 와르다 대주교님께서는 방한 기간 동안 이라크 그리스도인 난민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시고, 한국의 형제자매 여러분께서 난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하셨습니다.



### 평화나눔연구소 특별대담 '중동평화를 위한 가톨릭의 역할'

평화나눔연구소의 주최로, 와르다 대주교님으로부터 '중동평화를 위한 가톨릭의 역할'에 대해 듣는 특별대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정세덕 신부님과 청주교구 민족화해위원회 김훈일 신부님, 임강택 소장님 그리고 연구위원 및 청년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어 와르다 대주교님이 생각하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또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지 등의 심도 있는 질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방문

와르다 대주교님은 중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라고 강조하시며, 아르빌 가톨릭대학교(CUE)를 설립하셨습니다. 이처럼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이시는 대주교님은 한국에서의 첫 공식 일정으로 경기도 부천시 가톨릭대 성심교정을 방문하시어 한국 학생들에게 해외 상황에도 귀를 기울이며 연대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후 박영식 총장 신부님과 김철현 신부님, 김용석 교수님 그리고 요하네스 클라우자 ACN 한국지부장과 함께 학교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셨습니다.



### 서울대교구 성내동성당 미사 집전

지난 10월 13일, 와르다 대주교님께서는 서울 성내동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서경룡 주임신부님과 미사에 참례해 주신 신자분들의 배려로 전례는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이라크의 형제자매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는 사진 등이 본당 곳곳에 상세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성내동성당에서는 와르다 대주교님의 한국방문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설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동 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저희 ACN 한국지부에게 크나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아낌없는 지원을 전해 주시는 서경룡 신부님, 김민호 신부님, 류 레기날다 수녀님, 한 야곱 수녀님, 구 바오로 형제님 그리고 성내동성당 교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상임위원단과 간담회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주교회의의 상임위원단과 와르다 대주교님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ACN 한국지부 이사장이신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이신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님, 부의장이신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님, 상임이사이신 대전교구장 유홍식 주교님 그리고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님, 사무처장이신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장 김준철 신부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와르다 대주교님께서는 "다에시(IS)의 공격으로 그리스도교 성지가 수없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다"며 이라크 그리스도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지원을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





### 이라크 그리스도인을 위한 연대의 밤 'Solidarity Dinner'

ACN의 주최로, 이라크 그리스도인을 위한 '연대의 밤'(Solidarity Dinner)이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와르다 대주교님과 함께 고통받는 이라크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울러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ACN 한국지부의 지도신부이신 서울대교구 도곡동성당 임병헌 주임신부님의 임명장 수여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라크의 평화를 위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평화방송 특집대담 '난민들에게 희망을'

평화방송 특별대담 '난민들에게 희망을: 이라크 그리스도인 난민'의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ACN 한국지부 이사이신 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주원준 박사님께서 영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대담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와르다 대주교님께서는 1시간 분량의 대담 영상을 통해 이라크 그리스도인 난민들이 처한 처참한 실상을 전하시고, 이라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청하셨습니다. 평화방송 홈페이지(web.pbc.co.kr)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라크 교회를 위한 특별미사

지난 10월 14일, '이라크 교회를 위한 특별미사'가 ACN과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주관으로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되었습니다. ACN 한국지부 이사장이신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님, 이라크 칼데아 가톨릭 아르빌대교구장 와르다 대주교님, ACN 한국지부 이사이신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 유경춘 주교님께서 공동 집전하셨습니다.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강론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라크 교회를 특별히 도와주셔서 하루 빨리 박해와 위험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청합니다"고 전하셨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이어진 강연회에서는 유경춘 주교님과 와디 바티 한나 알바티 주한 이라크 대사께서 축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와르다 대주교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라크에 남겠다고 하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저희가 이라크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고 목격할 수 있도록" 한국 형제자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 참회와 속죄의 성당, 파티마 평화의 성당, 천주교 군종교구청 방문

와르다 대주교님께서는 민족화해센터, 참회와 속죄의 성당을 방문하시어 의정부교구장 이기헌 주교님과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전쟁의 고통과 폭력 속에서 국내 그리스도인 난민을 돌보고 계시는 와르다 대주교님은 이곳에서 남다른 감회를 전하셨습니다. 이후 와르다 대주교님께서는 파티마 평화의 성당을 방문하시어 초대 의정부교구장이신 이한택 주교님과도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와르다 대주교님께서는 이튿날 서울 용산의 천주교 군종교구청을 방문하셨습니다. 국군장병들을 위해 사목활동을 펼치시는 군종교구장 유수일 주교님과 교구 운영과 수도자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 절두산 순교성지 미사 봉헌

마지막으로 와르다 대주교님은 지난 10월 16일(연중 제29주일), 서울 절두산 순교성지에서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하르트무트 코쉬(Hartmut Koschyk) 독일 연방의원도 미사에 참례했습니다. 절두산 순교성지는 병인순교 150주년을 맞아 한 해 동안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평일 미사 봉헌금을 ACN 한국지부에 전해주고 계십니다. 원종현 주임신부님, 조한건 보좌신부님, 정연정 신부님과 모든 순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삶과 사랑의 근본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체는 골고타 언덕의 고난과 그분의 영광스런 현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머무르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사보다 더 큰 은총은 없을 것입니다. 2015년, 후원자 여러분께서 1,431,380건의 미사 봉헌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ACN은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미사 예물로 전 세계 사제 아홉 분 가운데 한 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사 예물을 받은 사제들께서 매년 수많은 감사 편지를 ACN으로 보내십니다. 사제들께서는 후원자 여러분을 위해, 또한 여러분의 지향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언제나 기도드린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제들은 여러분의 미사 봉헌으로 생계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미사 예물은 담당 사제 지원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연로한 사제들과 병환이 깊은 사제들의 부양 비용, 성직자 영성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에도 사용됩니다.

**아르헨티나** 산 마르틴(San Martín) 교구의 사제들이 미사 예물로 자비에 관한 영성 세미나에 참여하셨습니다. 이에 신부님 29 분께서 친필로 감사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는 85세 호세 히아꼬메요(José Giacomello) 신부님도 계십니다. 호세 신부님께서는 1957년, 베네치아에서 사제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신부님의 서품을 집전하셨던 대주교님은 훗날 교황 요한 23세가 되십니다.) 1년 뒤 신부님께서는 이탈리아를 떠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부임하시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신부님께서는 동료 사제들과 친교를 다지고, 세계 교회와 연대하며, 성인들의 통공을 경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호세 칼네라(José Calnera) 신부님께서도

“다른 사제들과 우애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기뻐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르헨티나는 사실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부님들께서는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쓰시지는 않으셨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며,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미사 봉헌은 크림반도 사제들의 생계 지원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쓰입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 심페로폴(Odessa-Simferopol) 교구의 야체크 필(Jacek Pyl) 주교님께서는 지역 주민들이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은 아주 값싼 생필품만 간신히 구입할 수 있을 뿐, 다른 활동은 거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업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던 식료품은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위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교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지원 활동은 교회와 동료 성직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역 사제들은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미 모두 공동체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제들은 물질적 지원보다도 위로와 기도, 격려를 나누는 것을 더욱 중요하다고 입 모아 말씀하십니다.

ACN은 필 주교님의 요청에 응답하여 1,500만 원 이상(12,000 유로)의 미사 예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사 봉헌은 크림반도 가톨릭 공동체를 격려하고 영성적, 물질적 활기를 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미사 봉헌’이란 무엇일까요?

미사 봉헌은 신자가 특정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사제에게 드리는 헌금 또는 예물을 말합니다. 물론 미사나 은총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사 봉헌은 봉헌자와 사제를 잇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미사 봉헌 예식은 2세기에 시작되었고, 중세에 발전되었습니다. 신자들은 1명, 3명, 6명, 9명, 30명을 위해 미사 봉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사 봉헌의 오용을 막기 위해 교회법 945~958조에 허가, 행정, 봉헌금 사용에 대한 규칙이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각 교구 주교님께서 교회법을 엄수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 복음과 증거

“언제나 온 마음으로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형제자매들을 위한 헌신하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없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선교 활동의 모토입니다.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품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선교는 아름답고 충만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물리적이고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해발 4천 미터, 페루의 산악 지대에는 80여 개가 넘는 작은 마을들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절반 이상이 전기 및 수도 시설도 없이 살아가며, 4명 가운데 1명은 문맹입니다. 지역 사제는 단 6분뿐입니다. 이렇게 지구의 끝자락이라 불리는 이곳에도 기쁜 복음은 전달됩니다. 도로 사정은 험준하고 가파르며 마을 간의 거리는 매우 멀기 때문에, 사제들은 각 공동체를 최대 7주마다 1번씩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페르시 로하스 바온(Percy Rojas Ballón) 신부님께서서는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복음말씀을 전하십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성체성사를 집전하시고, 주민 복지를 위한 활동을 하시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십니다. 이 지역에서는 사실 산악용 지프차 없이는 발이 묶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신부님께서서는 11년 된 낡은 지프를 운전하십니다. 지프가 워낙 낡기는 했지만 이마저 없었다면 일주일만 걸어야 마을 한 곳을 겨우 방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 지프 덕분에 신자들은

정기적으로 신부님을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ACN은 해당 지역 사목 활동을 위해 보다 튼튼한 자동차를 지원하고자 약 2,900만 원(22,700유로)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각자 그리스도의 계승자로서 은사를 받은 그분의 증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선교사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성심의 성모의 딸 수녀회’ 수녀님들은 그들의 삶과 활동을 통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전하는 은사를 가지십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음반다카(Mbandaka)에서 20년 넘게 지속되는 전쟁으로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학교는 파괴되었으며, 사회 기반과 공공시설은 모두 엉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성심의 성모의 딸 수녀회 수녀님 41분께서 거리의 아이들을 거두고, 미혼모들과 고아들을 돌보시는 소명을 따르십니다. 그러나 수녀님들은 현재 어려움에 봉착하셨습니다. 수녀님들께서 일하시는 사회·건강 센터와 수녀원이 서로 15km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히 대처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수도원 근처에 새로운 지부를 세우기로 결정하셨고, 이에 ACN은 약 1억 2천만 원(8만 유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느님 사랑의 증거는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여전히 피어날 것입니다.

안데스 산악 지역, 세상의 끝자락까지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가난아리와 미혼모를 돌보시는 마리(Marie) 수녀님



2003년, 선교사들이 에티오피아의 구무즈족 마을을 찾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주민들과 우물을 파는 사업을 진행하여 식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ACN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3년 과정의 사회 사목 선교 프로그램에 약 3,800만 원(3만 유로)를 지원하였습니다.



## 순교자의 피가 흐르던 땅

인도 아루나찰(Arunachal) 주는 아침 해가 뜨는 북동부 산악지대로, 중국, 미얀마, 티베트와 국경을 맞닿아 있으며, 무려 32개의 민족이 섞여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잊혀진 땅”이라고 부릅니다. 인도 정부의 발전 계획이 미처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손길은 이곳에 닿아 사람들을 어루만집니다. 많은 주민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지금은 선교의 땅으로 불리지만, 처음부터 교회가 아루나찰에서 환영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고, 교회는 불탔습니다. 19세기 중반에는 선교단을 구타하고 고문하여 참수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산자락에서 떠오르는 붉은 태양과 함께 순교자의 피가 흘렀습니다. 이후 20세기 말엽에 선교사들이 아삼(Assam) 주와 맞닿아 있는 선교원으로 주민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사랑의 복음이 얼마나 선하고 기쁨을 주는지 직접 확인하였고 마을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 주민들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은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병아리나 닭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15만 명이 세례를 받았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미아오(Miao) 교구는 인도에서 가장 큰 가톨릭 마을, 네오탄(Neotan)에 새로 건립된 교구입니다. 과거에는 애니미즘을 신봉하거나 개신교 공동체에 속했는데, 2000년에 이르러서야 마을 지도자들이 가톨릭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받아

들인 것입니다. 그 후 5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침례교회가 가톨릭 성전이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가톨릭 신자들은 개종하지 않은 침례교인들을 위해 따로 성전을 지어주었습니다.

박해는 멈추었고, 드디어 복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산악지역에서 선교는 언제나 물리적인 어려움이라는 장애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가 너무 높고, 멀고, 험하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엔진이 강력한 자동차가 꼭 필요합니다. 펠릭스(Felix) 신부님과 에삭(Esack) 신부님께는 낡은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지역에 아픈 이가 생기면 160km 떨어진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네 시간이나 운전을 하여 이들을 데려다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수녀원 세 곳에 식료품을 배달하시고, 미사를 집전하시거나 세례성사, 고백성사를 베풀기 위해 정기적으로 마을들을 방문하십니다. 신부님들께서는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다. 자동차가 수시로 고장이 나서 적어도 2주마다 수리를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펠릭스 신부님은 죄책감이 든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신자들이 아끼고 아껴 교회에 봉헌을 하는데, 그 돈의 상당수를 자동차 수리에 써야 한다는 것이 속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신자들은 자동차 없이는 사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아이들과 가정에서 사제들이 마을을 찾아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온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에 ACN은 후원자 여러분의 이름으로 약 1,300만 원(9,800유로)의 트럭 구입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이 높은 곳에서 더욱 찬란히 싹트게 될 것입니다.



일출의 땅에서 거행되는 미사



과거에는 박해받았지만 오늘날에는 환영받는 복음의 사도들



교구의 낡은 트럭, 더 이상 수리비로 낭비되는 비용은 없어야 합니다.



▲ 마르틴 주모아드 주교님(좌측), 세바스티아노 담브라 신부님(우측)

## 평화를 전하는 축복받은 사제들

사제들은 평화의 전달자입니다. 사제들은 성체를 통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매개하며, 인간 개개인이 하느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세바스티아노(Sebastiano) 신부님은 필리핀 민다나오(Mindanao) 섬에서 실실라(Silsilah)라는 평화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입니다. 신부님께서 “대화는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며, 대화는 인간을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실실라 운동을 통해 모든 종교인들, 특히 민다나오 섬 남부의 무슬림들과의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 자리로 찾아가 대화하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민다나오 섬의 극단주의 무슬림들은 평화와 이웃 사랑의 정신을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부 사야프(Abu Sayyaf, 필리핀의 이슬람 분리주의 단체)라는 테러 집단마저 창궐하고 있습니다. 세바스티아노 신부님은 2번이나 괴한의 기습을 당하셨고,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의 대화의 장으로 쓰이는 운동 본부 역시 2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민다나오 섬에 속하는 이사벨라(Isabela) 섬은 인구의 4분의 1이 가톨릭 신자, 4분의 3은 무슬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벨라 섬의 마르틴 주모아드(Martin Jumoad) 주교님과 11만 5천여 명의 가톨릭 신자들은 현재 가혹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직자들이 테러의 위협 아래 놓여 있습니다. 에두아르도(Eduardo) 신부님과 베르나르도(Bernardo) 신부님께서도 납치당하셨습니다. 로엘 갈라르도(Rhoel Gallardo) 신부님과 레네

엔리케츠(Rene Enriquez) 신부님께서도 고문당하고 살해당하셨습니다. 6년 전에는 무슬림들이 한 마을을 습격하여 방화를 저지르고 주민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섬의 주도인 바실란(Basilan)에서는 성 이사벨 성당이 폭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아부 사야프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향에 남아 무슬림 이웃들과 대화를 이끌어 평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열네 분의 지역 사제들을 지원하지 못할 만큼 가난합니다. 마르틴 주교님께서도 사제들이 신자들과 함께하고 영성적으로 소명을 따를 수 있도록 ACN의 지원을 청해 오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2,000만 원 이상(16,000 유로)의 미사 예물을 통해 사제들에게 물질적, 영성적 도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 세계 신자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마르틴 주교님께서도 세바스티아노 신부님의 평화 운동에 동의하시며 “저는 주님께서 활동하심을 압니다. 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세바스티아노 신부님께서도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카 2,14) 이 복음 말씀을 위해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하시며, “그렇지만 결국 저는 ‘주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소서!’라고 기도할 뿐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사에서 만큼은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미사 봉헌으로 고통받는 교회의 사제들을 지원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선행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미사보다 더 넓고 더 굳건한 평화의 실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여러분의 희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미사 봉헌은 선교의 일환입니다. 브라질 바라(Barra) 교구의 많은 신부님들께서 감사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마르셀루 신부님께서서는 “우리는 기쁠 때마다 ACN 후원자 여러분을 생각하게 됩니다.”라고 하시며 여러분의 사랑과 희생으로 생존의 걱정을 덜게 되었고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 융성할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조엘 신부님께서서는 후원자 여러분을 통해 어려운 형제자매들의 곁에 머무는 진정한 이웃사랑의 정신을 느끼신다고 하십니다. 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바라 교구의 많은 사제들과 선교사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십니다. 각각의 편지마다 짙은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선교 활동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아우르는 사랑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께 가슴 깊이 감사를 전하며, 모두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향을 위해 미사가 봉헌됩니다.



국제 ACN 대표  
요하네스 헤르만

Johannes Freiherr  
Heereman

###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7월,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의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시던 자크 아멜 신부님께서 다에시(IS) 테러범에 의해 살해 당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니제르의 사헬 지역 주교님께서 ACN 총사무국을 방문 하셨습니다. 니제르에서 그리스도교는 소수 집단에 속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이 처음으로 함께 성당과 이슬람 사원에서 번갈아 가면서 모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교님께서서는 이를 예언적 표징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슬람 세계가 “신의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되어선 안 된다는 것, 신은 오직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의 불빛이 희미하게 감지됩니다.

이 희망의 불빛은 선한 의지를 가지는 모든 이에게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저희 ACN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 희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실천 활동은 당연 미사봉헌입니다. 아르스의 요한 비안네 성인께서는 일찍이 “고통은 모든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항상 하느님을 움직이시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가장 큰 희망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자비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 시들지 않는 꽃

저는 얼마 전 남편을 먼저 하느님 품으로 보냈습니다. 저와 제 자녀들은 장례식 때 꽃 장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저희는 꽃 구입 비용 350유로를 ACN으로 보냅니다. 며칠만 지나면 버려질 꽃이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포르투갈의 후원자

### 미약하지만 큰 나눔

우리는 ACN의 활동을 끊임없이 지지해야 합니다. 이 하느님의 사업에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비록 미약하긴 하지만, 저희 본당은 가진 것을 모아 ACN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브라질의 한 수녀

###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생생한 증언

저는 시리아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이 담긴 ACN 동영상 한 편 보았습니다. 영상 속의 생생한 증언은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ACN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자흐스탄의 한 수녀

###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ACN의 자비의 활동에 언제나 가슴 깊이 우러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이 모든 선행들을 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캐나다의 새로운 후원자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www.churchinneed.or.kr](http://www.churchinneed.or.kr)  
 [/aidtothechurchinneed](https://www.facebook.com/aidtothechurchinneed)  
 [@acn\\_korea](https://www.instagram.com/acn_korea)  
 [info@churchinneed.or.kr](mailto:info@churchinneed.or.kr)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67 8층  
전화: 02-796-6440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